

만남

2013 12
통권 179호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아기 하느님 -----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47~49-----	8
우리들의 이야기	-----	13
공동체 소식	-----	18
활동모임시간 및 연락처	-----	21
이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일반 지향 - 피해 아동

온갖 폭력에 희생을 당하거나 버림받는 어린이들이 필요한 사랑과 보호를 받도록 기도합시다.

❖ 선교 지향 -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

그리스도인들이 강생하신 말씀의 빛을 받아 온 인류와 함께 구세주를 맞아하도록 기도합시다.

2013년 12월 칼럼글

아기 하느님 (대림 기도문)

나는 곧 나다 하신 하느님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나를 닮으라 하신 당신이

그 영광
그 권능과 부요
모두 버리고
이렇게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더니
끝까지 기다린다 하시더니
맨발로 나를 찾아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작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빈손 되는 넉넉함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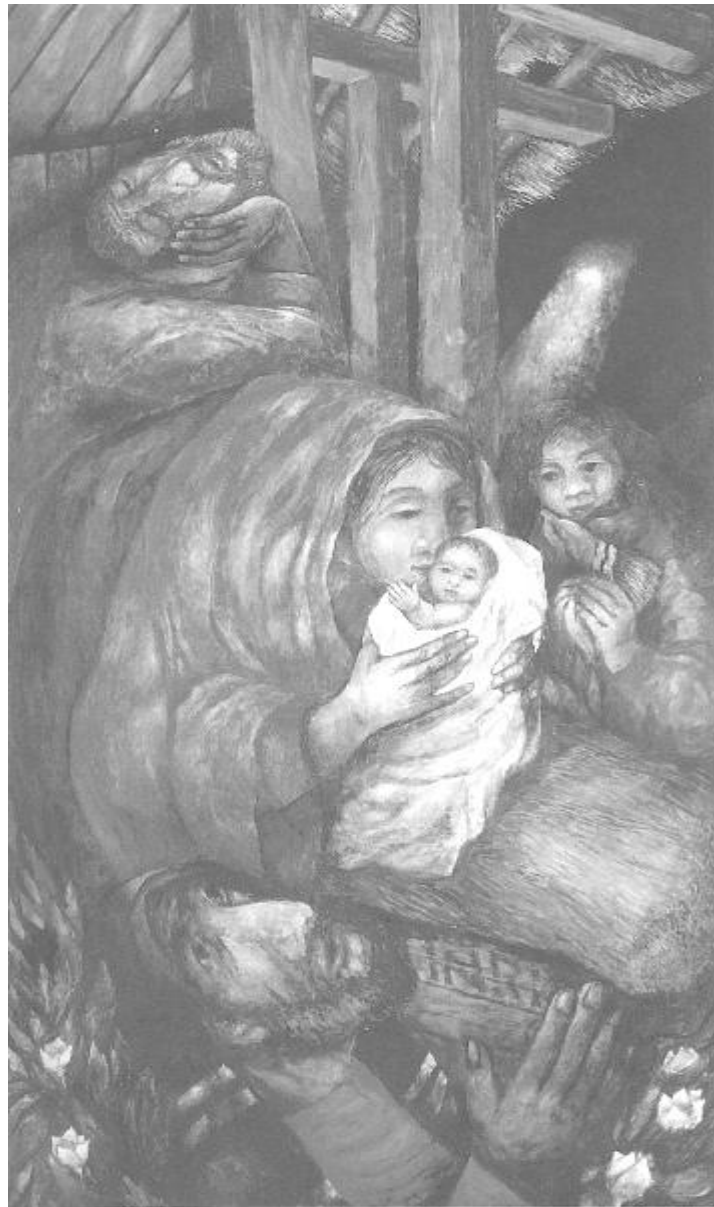
하느님보다 훨씬
커버린 나를
올려다 보시는 아가 하느님

얼마나 더 낮아지고
얼마나 더 작아져야할지
아득합니다

낮은 나를 찾아
아기로 오신 나의 하느님

당신 계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지키게 하소서

당신처럼 작아지므로
오로지
하느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의 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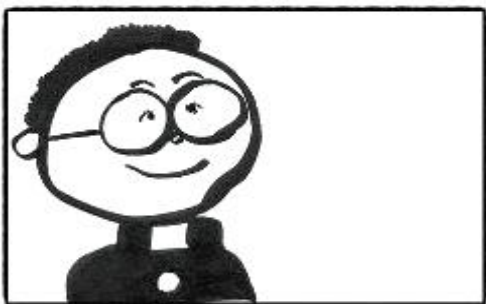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 1절을 부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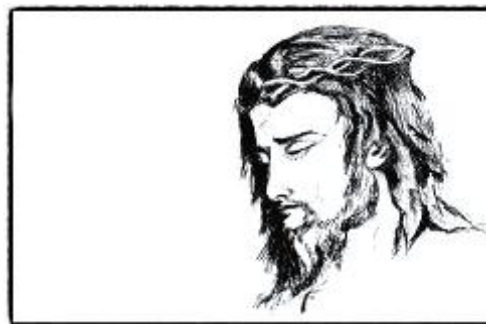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제가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 삶의 이야기 (진행자)



주님! 불충실한 종은 누구입니까?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2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 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한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 2013년 한 해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어느덧 2013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2014년 새해를 맞이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12월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시기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유종의 미를 생각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지나간 것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복음에 나오는 충실한 종처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신앙의 해’를 지냈습니다. 신앙의 해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돌아서라는 초대입니다. 교구장 주교님께서서는 신앙의 해 개막미사 때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사실은 사람의 위기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행위이고 믿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을 전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 줍니다. 우리 마음을 희망으로 채우고 우리가 생명을 주는 증언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음은 듣는 이의 마음과 정신을 얻어 그들이 당신 말씀을 따르고 당신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대로, 믿는 이들은 “믿음을 통하여 스스로 강해집니다”(「믿음의 문」, 7항 참조)

이처럼 은총의 선물로 받은 신앙에 우리 모두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을 더욱 새롭게 인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사도 1,8-11 ; 루카 24,35-48 참조),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라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주 반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먼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증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삶 안으로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할 때 그분에 대한 신앙은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처럼’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 2절을 부릅시다.

교리47

성경 길잡이 (16)

구약성경 - 모세오경(창세기 1-11장)

기원전 550년경에, 성경의 첫 번째 다섯 권을 일컫는 모세오경을 꾸며 만든 편집자들은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심어 주고 싶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냈으므로 그들은 들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하느님을 포기하고 이교도 신들을 믿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악과 무질서가 인간의 운명을 주도한다고 주장했던 이교도 신화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편집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오류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전해 온 순수한 전승으로 돌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들은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 즉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던 그들의 선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하느님이 모든 선한 것들을 창조하셨으며 악은 하느님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이 이루어 낸 죄스런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했던 그와 같은 유혹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낡은 것으로 의심하고 물질주의, 관능적 욕구, 세속적 인간주의라는 거짓 신들을 숭배하며, 악에 선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전 세대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참된 하느님 한 분만이 계시며 선이 악을 이기고 우리 선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안전하게 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오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과거를 기록하였으며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1장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조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에게 뿌리박힌 자신의 기원을 상기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뛰어넘어 우주의 기원과 인생 자체의 의미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

절까지 대목의 출처는 제관계 전승으로서 성전 예배의식에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은 지구를 바다 위에 기둥으로 떠받쳐진 평평한 구조물로, 하늘을 비와 눈이 내리게 하는 창문이 달린 얇어져 있는 사발 모양으로 알았던 유다인의 우주관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더 쉽게 기억하고자 의도적으로 구절을 반복시킵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와 같은 구절을 반복합니다. 시적구조로 이루어진 7일 동안의 거룩한 일의 내용에는 주님의 날이 거룩함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적 구조는 일곱 날들을 서로 연결하여 또 다른 사실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하느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첫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는 넷째 날과 연결되고, 빛물을 아래에 있는 물과 갈라놓는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시는 둘째 날은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시는 다섯째 날과 연결되어집니다. 또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을 돋아나게 하시는 셋째 날은 땅위에서 식물을 먹고 사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여섯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는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 구절의 의미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라는 표현은 특별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의도를 엄숙하게 선언하는 위엄을 드러내고자 사용한 복수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라는 표현은 아마도 사람들이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지상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돌볼 소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당시 이교도 신화와는 현저히 다르게 만물을 창조하시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창조는 오직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선신과 악신의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우주는 무(無)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조직이 원자들의 무질서한 충돌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시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가치 있는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상에서 하느님을 대신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창세기가 창조에 대한 현대의 과학적 이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이론에는 진화론을 인정하는 이론도 포함되는데 하느님의 존재와 만물의 기원이 하느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이유라는 신앙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학은 창조의 방법이라는 관찰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그 창조된 피조물 안에 어떤 진화가 일어날 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주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든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교리48

성경 길잡이 (17)

구약성경 - 창세기 2장 4절-3장 24절

이 대목에는 야훼스트 사료에 근거한 창조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두 이야기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짐승 다음에 창조되었는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짐승에 앞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편집자들은 분명히 이러한 차이점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그들이 창조에 대해 과학적 기술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두 이야기를 모두 보존한 이유는 두 이야기가 모두 공동체에서 특별한 신앙의 진리를 강조하려고 오랫동안 귀중한 자료로 보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째서 이 세상에 죄, 수난, 고통, 죽음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창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적 조건을 통찰하는 상징적 내용으로 가득한 다양한 표현을 통해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지상의 첫 인간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이 되는 세상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느님과 손을 잡고 걸도록 초대받은 자유로운 지적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혼인에 충실히 참여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창조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잘 사용하여 하느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피하고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 때문에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죽음, 인간관계 안에서의 경쟁, 노동의 고달픔과 권태로움, 해산과 같은 인간적 역하에서의 고통 등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될 수 있었던 세상이 죽음과 절망에 젖어드는 세상이 되었고, 오직 하느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최악의 순간에도 그 뱀의 머리를 부서뜨려 악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리49

성경 길잡이 (18)

구약성경 - 창세기 4장-11장

이 부분에서는 인간에 대한 죄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카인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한 가족인 인간을 살해할 만큼 악랄해져 갑니다. 우리는 하느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악의 홍수에 빠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바벨탑으로 보일 정도로 하느님과 우리 자신에게서 서로 소외되어 갑니다.

구약성경 - 아브라함- 창세기 12장-25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느님에게서 떠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11장 끝에서 사람들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할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테라의 아들 아브람입니다. 그는 기원전 1900년경 가족을 데리고 우르(오늘날 이라크)에서 하란(오늘날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근처의 도시)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테라가 죽은 후 아브람은 그를 새로운 고향으로 부르시며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느님의 말

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람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 사리아와 조카 롯과 그의 식솔 모두를 데리고 가나안 땅(오늘날의 이스라엘)으로 갔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환시를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그 약속을 계약의 형태로 새롭게 하셨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이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에게 아들 이사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25장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관한 다채로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 이야기들의 역사적 사실성을 문제 삼기는 하지만, 창세기가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구자로, 나중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그 땅을 약속하신 사람으로 내세운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창세 12,1-9. 15,1-47.27. 21,1-8. 22,1-19 이 구절들은 하느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중동에서는 짐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계약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의식에 참석한 이들은 언젠가 그들의 약속이 깨지면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잘라진 짐승 조각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소명을 받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 줍니다. 또한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이교도 가운데 사는)에게 하느님께서서는 인간 대신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안네 신부

평신도 주일을 맞으며...

정명옥 안나 살로메

사랑하올 형제, 자매님!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 즉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길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심과 같이 우리는 평신도로써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우리의 사명을 또렷이 알고 행하면서, 우리가 생활화 할 수 있는 평신도 사도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와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성직자는 은총의 분배자로 성사를 집행하시니 우리는 성직자에게 협력 하면서 복음 선포의 영적 교도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직자의 사목 직무에 함께 참여 하면서 협력 해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봉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거룩하게 살다 가신 성인성녀들의 행적과 의인들의 삶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수도원에서, 가정에서, 교회공동체에서 각자가 희생하고 봉헌 하는 기도와 희생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예가 많습니다.

소화 테레사 수녀는 어린 나이에 갈멜 봉쇄수녀원에 들어가 폐병을 앓고 모든 육신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외로움을 아프리카, 남미, 아세아 등지의 사제 선교사들을 위해 숨은 희생의 고통을 봉헌한 것이 많은 사제들과 선교사 들을 도왔습니다.

한 예를 들어 불란서인 선교사 신부님은 루르드 마을 출신이시며 한국에 떠나 오기 전 갈멜 수녀원에 가셔서 소화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녀 가되신 소화 테레사 기념 제대 앞에 묻혀계십니다. 그와 같이 갈멜 수녀원의 숨은 한사람의 기도와 희생이 전 세계의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사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감곡 성당(루르드의 성모상이 모셔진 성당)을 세우고, 많은 한인 성직자 수도자가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103위 순교 성인들이 있으며 다시 지금 복자품에 올릴 시복식준비중인 한국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외국에서 이렇게 좋은 성당에서 한국 신부님을 모시고 아무어려움 없이 미사에 참례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전교지방에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한지 오래되며, 평신도들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원 봉사하러 나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생활 안에서 기도 봉사와 나눔의 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느님의 은총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전파와 사랑의 선교사로서 교회의 근본사명을 알고 성직자의 복음 선포에 대하여 우리 평신도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신자들이 갖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 밖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자신 각자가 복음적 역할을 하고 전파하려면 우리자신들이 말씀 안에서 생활화 하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한 행동할 때 먼저 우리자신이 변화되고, 또한 이웃도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같은 차원 안에서 생활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 하고, 다음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 지상에서 부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이웃에 사랑을 실천 하고, 증거 하면서 자상한 배려의 봉사와, 희생,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생활화함으로서 성서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과 누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심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의 자선을 베푸실 것을 확신 합니다. 우리 평신도도 왜 복음전파에 성실해야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기에 우리의 영원한 삶의 상속을 이웃과 전 세계에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의 기도를 명심하면서, 가정과 사회,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 지상위의 어느 구석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느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평신도 사도직을 잘 실행하도록 노력 합니다.

“당신들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일 한만큼 주겠소!” (마태 20 장 4절) 하느님 감사합니다.

“반뇌 성지”를 다녀와서...

오스나브뤽 이진아 비비아나

독일에 온 이후로 “반뇌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었다. 특히 기적의 샘물에 대한 이야기는 막연히 기적을 갈구하고 있던 나에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성지였다.

우리 오스나브뤽 공동체의 가을 소풍 장소가 “반뇌 성지”로 결정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부터 설레던 터였다.

10월 첫 토요일, 많은 비가 쏟아질 거라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포근한 날씨와 성모님의 발현 성지에서 체험하게 될 기적에 대한 부푼 기대감으로 떠나는 발걸음도 가벼웠다.

자연 속에 한가로이 자리 잡은 고풍스런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고즈넉한 경관에 흠뻑 취할 수 있어 좋았다. 호텔 안의 작은 경당(예전에 수도원이었다는 호텔에는 작고 아름다운 경당이 있었다.)에서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성지를 둘러보았다. 스스로를 ‘가난한 자의 동정녀’라 칭하시며 어린 소녀에게 발현하신 곳은 그저 보기에만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가난한 농가였다. 어린 마리에뜨에게 나타나셔서 “많이 기도하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성모님의 발현장소를 따라가며 한 단씩 마음을 다하여 묵주기도를 올렸다. 기적의 샘터에서는 물에 손을 담그고 마음속에 간직한 치유와 소원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물을 마셨다.

호텔로 돌아와 저녁 기도를 마치고 가졌던 나눔의 시간! 각자의 삶에 대한 에피소드로 세 살 박이 꼬맹이부터 60을 훌쩍 넘기신 어른까지 한 방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요일 아침 8시! 아침기도를 시작으로 우리의 순례는 계속 이어졌다. 9시 30분 독일어 미사! 우리 공동체의 Markus가 독서를 하고 바오로 회장님이 예물바구니를 돌리는 등 하느님께서 우리 일행을 위해 손수 마련하신 미사인 것만 같아 미사시간 내내 마음이 벅찼다. 미사 후 모두 십자가의 길 한 처 한 처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묵상함으로써 짧은 여정의 순례를 마무리했다.

반뇌에서 나는 갈구했던 어떤 커다란 기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늘 내

주변을 채우고 있는 기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2013년 따사로운 어느 가을 날! 문득 우리는 벨기에 반뇌 성지로 이끌어졌다. 일행에는 철없는 어린아이들도,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독일 노인 분들도 있었다. 모든 기도처를 함께 따라다니며 고사리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 한국말 기도예 전혀 불편함 없이 함께 기도해주신 Markus의 부모님! 이렇듯 우리를 반뇌로 이끌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기적이고, 나아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커다란 기적임을 나는 깨닫고 있었다. 이 순간 나는 “기적은 이루진다고 보다는 깨닫는 것”임을 알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령의 날에

최영숙(데레사)

불러주신 하느님의 초대 상에서 설렘과 두려움과 기쁨에 찬 마음으로, 그것도 독일의 함부르크 만남성당에서, 하느님만을 믿겠다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어제의 감사와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와 찬미와 찬송과 찬양을 드리며, 함께 살아온 저희들의 만남의 인연도 벌써 40년이 훨씬 더 지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하늘처럼 높게 땅처럼 넓게 바다처럼 깊게 자라게 하시고, 형제자매들이 서로 평화인사 나누도록 두 손을 잡게 하시며, 예수님 잔치 상에 떡과 술의 형상이 오묘한 하늘의 신비로 저희영혼들을 성체성혈로 초대하시어, 치유와 축복으로 구원과 생명을 주시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저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며, 항상 저희와 함께 살아계시는 성령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 안에 마냥 피어오르던 고통의 꽃들이 이제 아름다운 은총의 열매로 주렁주렁 영글어 가는 지금 이때, 세상의 모든 것을 그만 다 내려놓고, 한그루의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려, 바람 부는 대로 휘날리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지막 한 잎의 단풍잎 같이, 허무하고 서글픈 죽음을 맞아 제대 앞에 나란히 누워있는 하얀 소복차림의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며,

“사람아,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창세 3, 19) 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실감납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삶과 죽음이 하느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아갈 것같이 세상의 좋은 것에만 맛들이고,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미련함이 하느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워집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느님을 만나 뵈는 때 뭔가를 선물로 보답해 드려야할 텐데, 한평생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 제가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덕을 세워 하늘에 보화도 집도 마련해 놓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느님! 제가 죽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부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저를 무섭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 세례로 저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고,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다고 성령으로 약속하셨기에, 저는 당신만을 믿고 따르며 부활신앙을 희망했지만 말씀대로 따라 잘살지 못했습니다. “하느님, 이 불쌍한 죄인을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밖에 당신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좀 일찍 자신을 알아 생각과 말과 행실을 더 다스렸더라면, 좀 일찍 가족을 소중하게 느끼고 더 사랑하였더라면, 좀 일찍 이웃을 돌보고 자선을 더 베풀었더라면, 좀 일찍 벗을 위하여 마음을 더 나누었더라면, 좀 일찍 하느님을 믿고 신앙을 더 고백하였더라면, 좀 일찍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더 걸었더라면, 좀 일찍 성모님께 묵주기도로 장미화관을 더 바쳐드렸더라면, 좀 더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았더라면 오늘의 죽음이 하느님 앞에 더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빛과 성모님의 손길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 된다할지라도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더 뿌릴 수 있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사랑의 꽃을 더 피울 수 있고,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더 얻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연령회에서 알립니다.

2014년 1월부터 매달 기일 맞으시는 유가족 분들은 연령 회에서 선종하신 교우들의 연령을 위하여 매달 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오셔서 촛불 봉헌과 연도를 함께 바쳐드리기를 초대합니다.

장소와 시간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매월 4주 목요일 17시

❖ 1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나탈리아 (St. Natalia)	김 성 미 이 민 영	25일	미 누 엘 (St. Manuel) 엠마누엘라 (St. Emanuela)	김 무 진 허 선 애
2일	비비아나 (St. Bibiana)	남 궁 현	26일	스테파노 (St. Stephen)	김창완 강신영 이이정 최명준 홍성순 홍성철
3일	비앙카 (St. Bianca)	허 미 란			
4일	크리스티안	허 채 열 최 세 희			
6일	니콜라스 (St. Nicholas)	김 정 득 서 범 석			
8일	마 리 아 (St. Maria)	박 순 옥 오명순 이순자 이미미 이영희 홍미옥	27일	요 한 (St. John)	이 기 열 리 삭
			29일	다 비 드 (St. David) 사 비 네	김용일 허홍진 홍심응 민
13일	루 치 아 (St. Lucy)	박 우 연 배수현 한상아			
15일	크리스티아나 (St. Christiana)	홍 춘 자	31일	멜라니아 (St. Melania) 실베리오 (St. Silverio)	서 미 란 박 인 성
16일	노 아 (St. Noah)	박 노 아			
24일	노 엘 라 (St. Noela)	신 순 자			

❖ 지방 공동체 영명축일

2일	비비안나 (St. Bibiana)	이진아(O)	25일	아나스타시아	김영숙(B)
13일	루 치 아 (St. Lucy)	최예린(B) 문정자(H)	26일	스 테 판 스테파노 (St. Stephen) 스테파니	문우영(H) 부종배(O) 이경숙(H)
	오텔리아	김선우(O)	29일	데 이 빗	정유석(H)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12월 25일 ♣ 배연자 말지나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0월 27일(2차)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2차)
계(€)	152,98(116,82)	229,99	302	176,25(89,66)

❖ 12월 성가번호

12월	입 당	봉 헌	마 침
1일	91	212	89
8일	93	211	95
15일	96	511	41
22일	88	512	97
24일	행렬	103	484
29일	113	210	114

❖ 자진헌납금 ❖

10월 27일 - 11월 17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이선주, 박귀동, 김기연, 손수희, 김형웅, 진윤희, 이철우, 최장용, 이정수, 박춘실,
권지연, 이석우, 임정희, 한말조

구좌입금 :

서유미, 허채열, 최순남, 허두욱, 김치수, 최화영, 곽케빈, 허길조, 최형식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미사 전례 ❖

12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카페 봉사
1일	김형웅 야고보 이정자 쟈마	김치수 도밍고 김영희 클라우디아	이정수 토마스 최영숙 데레사	2구역
8일	이경규 안스카 유곡지 아그네스	백정선 토마스 이영자 헬레나	허길조 안드레아스 남궁춘배 발트로메오	3구역
15일	허채열 크리스티안 김영란 엘리사벳	이현묵 요셉 권오상 마리아	김유석 그레고리오 최장용 레오	청년반
22일	손대조 요셉 강순행 말가리아	이영원 베드로 김정옥 크리스티아나	이현묵 요셉 허길조 안드레아스 김유석 그레고리오	4구역
24일	최화영 시몬 최종금 로사	이철우 아우구스티노 이영희 세실리아	남궁춘배 발트로메오 허길조 안드레아스 최장용 레오	공동체
29일	강신행 토마스 이순자 마리아	김동수 시몬 강신자 벨라뎃다	김유석 그레고리오 남궁춘배 발트로메오 허길조 안드레아스 최장용 레오	공동체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12월 11일(수) 19:00 대강당에서 대림특강이 있습니다.
2. 성탄전야 미사는 22:00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성탄 대축일 미사는 예수 성심 본당에서 15:00 함께 봉헌되어 집니다.
3. 12월 29일(주일) 17:00 대강당에서 송년 미사가 봉헌되어지고, 친교의 행사가 있습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기로 하였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정 명 옥 살 로 메	040/ 644 8623 0170 400 4754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3742 0006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732 1104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040/ 890 3264
			총 무	남궁춘배 발토로메오		040/ 850 9768
		2구역	구역장	공 석		
			총 무	허 채 열 크리스티안		040/ 570 9734
		3구역	구역장	공 석		
			총 무	강 순 행 마르가리타		040/ 297 543
		4구역	구역장	백 정 선 토 마 스		040/ 250 2589
			총 무	김 애 란 체칠리아		040/ 206 785

❖ 2013년 12월 ❖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일	대림 제1주일	본당 바자회	
2	월			
3	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선교의 수호자) 대축일		
4	수			
5	목		꾸리아	
6	금		1구역 소공동체	
7	토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8	일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사목협의회	
9	월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0	화			
11	수		대림특강 17:00	대강당, 복음화 분과
12	목		성령기도회	
13	금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2구역 소공동체	
14	토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		
15	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청년기도회	
16	월			
17	화			
18	수			
19	목			
20	금		3구역 소공동체	
21	토			
22	일	대림 제4주일 동지	예비자 교리	
23	월			
24	화		성탄전야미사 / 22:00	대강당
25	수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 성심 본당 15:00	
26	목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연령회	
27	금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4구역 소공동체	
28	토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29	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송년미사 / 송년회 행사 17:00	대강당
30	월	성탄 팔일 축제 내 제6일		
31	화	성탄 팔일 축제 내 제7일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정 명 옥 살로메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040 24 34 92
Fa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mannam.cathms.kr
E-mail: korea-ham@mannam.de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BLZ : 200 505 50, Konto-Nr. : 1230 126 136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정 명 옥 살로메	annamo42@yahoo.de H.P : 0170 400 4754
	최 영 자 파울라	dada1311@nate.com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소공동체 17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74 2964 504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